'신종 코로나' 제주 1차산업도 직격탄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7일 현안 업무보고

소비 위축 가중되며 농축산식품 가격 하락 도, 농어촌진흥기금·온라인 거래 확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제주관광산업에 이어 1차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 속 '신종 코로나'가 가중되면 서 농축산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고 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중 3 차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축산식품 국·일자리경제통상국·해양수산국·미 래전략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대응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신종 코로

올해 봄꽃 개화시기

평년보다 3~6일 빨라

올해 봄꽃(개나리, 진달래)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평년보다 3

~6일 빠르고 지난해와 비슷하 거나 1~2일 빨라질 것으로 전

7일 민간 예보사업 기업인 GBM Inc의 153웨더팀에 따 르면 지난 겨울 초·중반 (12월, 1월) 이상난동 및 많

은 강수량과 앞으로 2~3월에

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개나리는 3월 13일 제주를 시

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4~18

일, 중부지방은 3월 18~24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및 산간

지방은 3월 26일 이후에 개화

진달래는 3월 18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8~

23일, 중부지방은 3월 24~30

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2일 이후 개

제주의 봄꽃 절정은 3월 21

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이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망됐다.

개나리 3월 13일 예상

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 기위축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자료에 따르면 우선 일부 월동채소 가격이 1 월 하순 이후 가격 하락세가 형성되

월동무(20kg) 가격은 1월 2만445 원에서 2월 들어 1만956원으로 46.4 %, 양배추(8kg)는 1만858원에서 8318원으로 23.4%로 하락했다.

감귤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월 현재 한라봉(3kg)이 9006원, 레드향 (3kg)이 1만4458원, 천혜향(3kg)이 1만2366원으로 1월과 비교하면 각각

22.7%, 21.1%, 14% 하락했다.

축산물은 지난 3일 기준 소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이 하 락했으며. 닭고기가 큰 폭의 하락세 를 보였다.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 생일 대비 돼지고기(kg)는 7.3%, 계 란(특 30개)은 1.6%, 닭고기(kg)는 24.4% 떨어졌다.

수산업 분야도 설 전후 일시 어가 상승 기류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하 락세로 전환했다. 옥돔(2~3미/kg)은 지난달 22일 기준 3만7440원에서 2 월 4일 기준 3만1160원으로 17%, 빙 장갈치(25미/10kg)는 27만2450원 에서 25만8150원으로 5% 감소했다.

이와함께 식품소재 및 완제품 납 품 주문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 악됐다.

제주도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 민·

관·학·연 공동 대응대응반을 구성해 농어업인 피해 대책 방안을 발굴하 고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 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조기 지원하 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어가 경영 안전을 도모한다.

월동채소는 현재 가격 하락세 속 중국산 김치, 양배추, 무, 당근 등 수 입량 감소 등으로 제주산 농산물 등 의 일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 소비를 위한 판촉・기획 홍보 등 을 추진하고 학교와 공공 급식 확대 를 추진키로 했다.

감귤분야는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만감류 가격 안정화에 나 서고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 등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에 나설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이견

도교육청 "인성교육 우선 시기… 영어수업 지양" 일부 학부모 "영어수업 안하면 사교육 부담 커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를 운영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제주 에선 '인성 교육이 우선'이라는 교 육청의 방침에 따라 초 1~2학년 방 과후 영어수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에선 사교육 부 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 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전국 6167곳의 절반이 넘는 3409곳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4499곳(73%)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말 조 사한 결과다. 같은 해 3월 초등 1~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선행교육 금지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 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개설하 는 학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1~2학 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은) 법률에 서 허용하는 사항이기에 학교별로 수요와 요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제주에선 그 운영 여부를 두고 입

장 차가 뚜렷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초 1~2학년은 인성교육을 통한 학 생간 관계 설정과 학교 생활 적응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라며 초등 1~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지양할 것 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이에 반해 일부 학부모들은 방과 후 수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 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는 쓴소리를 낸다. 이같은 의견은 제 주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도민청원코너'에도 올랐다. 청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초 1~2학년 방 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해졌지만 제주 도교육청은 이를 풀지 않고 있다"며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데 한달 학원비가 20만~30만원이라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 규 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이 3~4학년 에 시작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 등을 고려해 지식 습득의 적정한 나이를 그때로 판단한 것"이 라며 "초 1~2학년 때는 인성 교육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제주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겨울인듯. 봄인듯… 유채꽃과 관광객 포근한 겨울날씨를 보인 8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유채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사진을 찍 강희만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류조

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에서 지적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 지 인근 한못, 직구물, 성읍저수지, 험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온평~신천 해안까지 확대한다.

뤄진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 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제주지 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5 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해 하도리, 종달리,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대규모 조류 출현 예상지역을 비롯해 예정

첫 조사가 이뤄진 7일은 하도리 포구와 오조포구, 성산~표선~남원 해안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해 적정성 및 입지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

한편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달 18~21일 하도리~신천리 구간 해안과 내륙 일대에서 조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46종의 조류 1만8890마 리를 관찰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법 적보호종 7종 61마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5종 38마리를 확인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4·3희생자증·유족증 신청 쇄도

도 "지난해 4월부터 1만2995명 접수… 1만1566명 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을 신청받은 결과 1만2995명이 접수 돼 이 중 1만1566명에 대한 발급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발급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 일 기준 70대가 3279명(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02명(16%), 50 대 1643명(13%)순이었다. 10대 이 하도 1523명(12%)이었으며, 그 외 연령층에서 4448명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014명 (62%), 서귀포시 2786명(21%), 도 외 거주자 2191명(17%), 국외 거주 자 4명(일본 3, 미국 1)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 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 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해 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 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국토부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 조사 돌입

7일 하도리 등 첫 조사 5월까지 총 20차례 진행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 완을 위한 조류조사가 추진된다.

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는 법적절차다.



조상윤기자



강명언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덕수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송영환외동문일동





강동협 (삼성SDS(주) 해외법무팀 근무) 서귀포고 21회 졸업, 한양대 법학과 졸업 미국 플로리다코스털대학 로스쿨 졸업

미국(워싱턴DC)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가(정석근, 석호, 대홍) 이종사촌(양훈철, 훈진)





김도 영 (부 : 김은치·모 : 양정화)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형제자매 일동

